

ATS 운영방안 세미나

축사

2024. 5. 9.(목) 14:00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입니다.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사장님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준서 증권학회장과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유관기관이 모여
구체적인 ATS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의미 있는 제언들을 수렴함으로써,
곧 출범할 ATS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ATS 운영방안과 통합 시장관리방안

< ATS 운영방안 >

우리 증권시장은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대체거래소(ATS) 제도 도입('13.5월) 이후 10여년 만에,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의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ATS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되어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 하루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 거래시간 5시간30분 ↑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유형*이 도입되어
다양한 거래전략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간가호가: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 자동 조정
스톱지정가호가: 시장 가격이 투자자가 정한 가격에 도달시 지정가 주문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므로,
시장 간의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합 시장관리방안 >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관리가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복수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시장 유동성의 분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집행의무*에 대해서는

* [法 §68]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동 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양 시장 중 택일)

당국이 선제적으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구축 등
증권사의 준비를 지원하고
투자자의 주문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실시간으로 자동집행하는 시스템

또한,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ATS만의 Pre·After마켓*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여,

* Pre마켓 : 08:00~08:50 / After마켓 : 15:30~20:00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시간 동안
공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차단하겠습니다.

이 외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업틱룰 등
공매도 규제들은 ATS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일 거래소 종가 기준 30%의 가격변동폭,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와 청산, T+2일 결제 등
ATS의 시장감시·청산·결제 등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유동성 종목이 다수 있고
투자자의 수요와 관심이 큰 상장 ETF와 ETN은
법규 개정을 통해
향후 ATS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아울러, ATS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다소 수정이 필요한
자본시장 법규들도 신속히 정비*해
복수시장 체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도 공개매수 면제, ATS에 대한 NCR규제 등 배제

III. 마무리 말씀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ATS가 될 넥스트레이드는
금년 말 본인가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TS의 출범은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회사의 신설과 달리
여러 증시 유관기관과 증권업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한 투자자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드려야 할 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합심하여
ATS의 출범이 지난 2년 동안 지속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의 ‘마일스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융당국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